

린 미얀마 뉴스레터

제 9 호

2026 년 7 월 31 일 (금)발행 · 법무법인(유) 린 미얀마사무소

“ 린은 미얀마 비즈니스를 압니다 ”

미얀마 국영지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에서 기사 3 건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계열 Nikkei Asia 에서 미얀마 관련 기사 2 건을 발췌·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일본 규슈 구마모토 강진 소식, 한국 증시 폭락에 따른 국민 피해 상황, 법무법인(유) 린의 주요 서비스 안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재미얀마 한인 기업 및 동포 여러분의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This photo captures a group photo of the Myanmar-Japan business leaders' meeting.

지난 7 월 29 일 양곤 안킨 소재 묘와디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미얀마-일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양국 인사들의 기념 촬영 모습.

01 미얀마·일본 경제인, 경제협력 심화 논의

Myanmar, Japan Business Leaders Deepen Economic Ties ·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미얀마와 일본의 경제인들이 지난 7 월 29 일 양곤 안킨 소재 묘와디 미디어센터에서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얀마 종교간대화그룹(중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양국 경제계의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미얀마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종교간대화그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기독교 담당) 두 투 박사는 "이번 양자 회의를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얀마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 더 많은 고용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종교간대화그룹 위원장과 일본측 경제인 2 명이 개회사를 맡았으며, 위원장은 일본 INGO PEACE 단체 회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다과회를 주최했습니다. 대일 교역·투자에 관심 있는 한인 기업에도 참고가 되는 소식입니다.

02 미얀마-에티오피아, 평화프로세스 경험 공유

Myanmar, Ethiopia to Share Peace Process Experience ·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임기를 마친 주미얀마 에티오피아 대사 다바 데벨레 훈데가 지난 7 월 30 일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밍 아웅 흘라잉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양측은 미얀마가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새 정부가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점과, 에티오피아 역시 지난 5 월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고위 관료 간 친선 방문 교류, 내부 분쟁 종식을 위한 평화프로세스 경험 공유, 평화협상기구의 상호 참관,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국경 지역의 불안정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불법 입국 외국인의 체계적인 본국 송환 문제도 다뤘으며, 농업·무역·관광 등 다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03 DICA, 2026 년 상반기 미신고 기업 1,000 곳 등록 말소

DICA: 1,000 companies fail to file AR in H1 2026 ·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투자기업관리국(DICA)에 따르면, 2026 년 상반기 온라인 등록 시스템(MyCO)에 연차보고서(AR)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이 말소된 기업이 총 1,000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월·2 월 각 200 곳, 4 월 400 곳, 5 월 200 곳이 말소되었으며, 3 월과 6 월은 말소 기업이 없었습니다. 2025 년에는 7,300 곳, 2024 년에는 19,000 곳이 AR 을 제출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모든 등록 기업은 설립 후 2 개월 이내, 이후 매년 1 회 이상 AR 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10 만 샯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R 미제출 상태가 13 개월을 넘기면 정지 통보(I-9A)를 받게 되고, 통보 후 28 일 이내 미대응 시 기업 상태가 '정지'로 전환됩니다. 정지된 기업이 지위를 회복하려면 AR 수수료 5 만 샯, 복원 수수료 10 만 샯, 지연제출 수수료 10 만 샯 등 총 25 만 샯을 납부해야 하며, 정지 후 6 개월 내 복원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말소됩니다. 미얀마 내 법인을 운영 중인 한인 기업에서는 AR 제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시 저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4 [일본 니혼게이자이] 아세안, 미얀마 사태 해결에 진전 없어

ASEAN makes little headway in resolving Myanmar crisis · Nikkei Asia, 2026.7.21

닛케이 아시아는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미얀마와의 관계 설정 방식을 두고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이 개회사를 맡은 이 회의에서, 내전에 휩싸인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둘러싼 회원국 간 뿌리 깊은 견해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회원국들은 대화와 실용적 관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아세안 내부의 균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리스크에 관심 있는 한인 기업들도 아세안-미얀마 관계의 향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일본 니혼게이자이] 미얀마의 아세안 복귀, "아직 멀었다"

Myanmar's return to ASEAN fold remains 'far off,' Philippines says · Nikkei Asia, 2026.7.23

닛케이 아시아는 위 외교장관회의 직후 라자로 장관 겸 아세안 미얀마 특사가 미얀마 지도부의 아세안 정상급 회의 복귀가 "아직 멀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의 '5 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이행 여부가 여전히 평가 중이며, 아세안은 이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준거 틀로 재확인했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올해 4 분기 중 미얀마 내 소수민족 무장조직 관할 지역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방문을 이끌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국제적 입지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대외 교역·투자·외국환 환경에 관심 있는 한인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06 일본 지진 발생: 34 명 사망, 구조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Kumamoto quake death toll rises to 34 as rescuers race against the clock · 2026.7.28~30



지진으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갈라진 구마모토현 현장. 소방차가 긴급 출동해 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34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팀은 현재 재난 발생 후 72 시간이라는 중요한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기 전에 구조 작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7 월 28 일(화) 오후 4 시 27 분경(현지시간) 규슈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 인근에서 규모 7.1(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7, USGS 기준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부상자는 89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망자 중 7 명은 가시마마치 이온몰(Aeon Mall) 폭발·붕괴 사고로, 8 명은 야쓰시로시 닛폰제지 공장의 굴뚝 붕괴 사고로 각각 숨졌으며, 나머지는 주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9 명은 지진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온몰 폭발은 지진 발생 약 80 분 뒤 일어났으며, 아키오 요시다 이온 사장은 가스 누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구마모토현 전역 406 개 대피소에 9,400 명 이상이 머물고 있으며, 약 79,700 가구가 단수 상태로 복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6 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1,400 명 이상의 인력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이재명 한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의 위로에 감사를 표하며 중앙정부가 구조를 총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2024 년 노토반도 지진(사망 732 명) 이후 2 년 반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에 생산기지나 협력업체를 두신 한인 기업께서는 물류·공급망 영향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Xinhua, Japan Times, CBS News, UPI 등 외신 종합. 사망자 수 등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07 코스피 폭락, 개인투자자 피해 눈덩이 — 반대매매 급증·레버리지 손실 56 조 원 추정

한국 증시 폭락에 따른 국민 피해 상황

코스피가 지난 6 월 고점(9,385 선) 대비 30% 안팎 폭락하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에 뛰어들어 투자자들의 손실이 두드러집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Citi)는 관련 레버리지 ETF 잔고가 지난달 22 일 525 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90 억 달러(약 56 조 원) 수준까지 급감했다며, 이 기간 개인투자자가 입은 총 손실을 약 387 억 달러(약 56 조 원)로 추정했습니다.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 개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담보 부족으로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는 최근 반년 새 596% 급증했으며, 지난 7 월 9 일 하루에만 1,422 억 원이 강제 청산되어 전날(288 억 원) 대비 5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1 조 4,322 억 원에 달해, 주가가 추가로 밀릴 경우 반대매매가 다시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110 조 원 선 아래로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증권사 집계에 따르면 고객 26,743 명 가운데 92.93%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2 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률이 70%에 육박해 원금 절반 이상을 날렸다는 30 대 직장인의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에는 '손절 시기를 놓쳐 계좌를 덮어뒀다'거나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겠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수를 약 1,500 만 명으로 추산하며 정부·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안마 한인 동포 여러분께서도 국내 보유 주식·신용거래 현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활용 중이시라면 신중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자료: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국민일보, 위키트리 등 국내 언론보도 종합.)

법무법인(유) 린 · 주요 서비스 안내

미얀마 내 법인설립부터 청산까지,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합니다

법인설립	MIC/DICA 투자·법인 등록, 지사·연락사무소 설립, 합작법인(JV)·외국인단독법인(WFOE) 설립 자문
청산	법인 해산·청산 절차 대행, 사업 철수(Exit) 전략 자문, DICA 등록 말소 대응
부동산매매	토지·콘도미니엄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외국인 부동산 소유 구조 자문, 권원조사(Title Search)
민사·형사 사건 자문	상거래 분쟁, 계약 분쟁, 형사고소·고발 대응, 법원·경찰 대응 및 변호
회계·세무	법인세·부가세 신고 대행, 급여세·원천징수 자문, Lin Protax 브랜드를 통한 통합 회계·세무 서비스

상담 문의: 09 449191234 (카카오톡 ID: benice4u) | 한국 010-3358-8080

본 뉴스레터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투자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법인(유) 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린

Tel. 09 449191234 | 카카오톡 ID: benice4u

한국 Tel. 010-3358-8080 | 02-3477-8695

www.law-lin.com | www.myanmarlaw.net | Email. kjlee@law-lin.com